

장준하의 언론사상 연구*

김영희**

이 연구는 한국 현대 언론사상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작업의 하나로, 1950~1960년대 월간 잡지 『사상계』를 발행하여 잡지 저널리즘의 영향력을 당시 주요 신문 못지않게 키운 잡지언론인 장준하의 언론사상을 고찰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장준하의 언론에 대한 인식이 어떤 과정으로 형성되었으며, 그의 언론사상의 주요 논리와 의미는 무엇인지 고찰했다. 이를 바탕으로 장준하 언론사상의 성격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검토했다. 연구 결과 『사상계』창간 당시부터 일관되게 나타나는 장준하의 언론사상의 토대는 지식청년층을 계몽하려는 민족주의적 계몽언론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1950년대 말부터 일종의 해설저널리즘 또는 방향제시 저널리즘의 성격도 보였다. 1962년 이후 『사상계』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심해지면서, 그의 언론사상은 일종의 주창 저널리즘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평가된다. 장준하의 언론사상은 당시 한국 언론계와 학계에서 새롭게 인식되던 구미의 언론개념과 이론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당시로서는 선진적인 사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의 주장과 논리는 언제나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주제어: 장준하, 잡지저널리즘, 현대 언론사상, 사상계, 민족주의적 계몽언론사상, 해설저널리즘, 주창저널리즘

1. 머리말

한국 현대 언론사상의 역사에서 장준하는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개화기 이래 저널리즘 활동에 관한 체계적인 인식 즉 언론사상은 신문 발행에 참여했던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잡지매체를 통해 언론활동을 전개하고, 언론사상을 제시한 인물들이 있다. 해방이전 대표적인 인물로 『소년』, 『청춘』 등의 잡지를 발행한 최남선, 『개벽』의 주요 필진이었던 김기진, 이돈화, 차상찬, 『삼천리』를 발행한 김동환 등을 들 수 있겠지만, 이들이 우리나라 언론사상을 형성한 주류라고 하기는 어렵다.

해방이 되자 수많은 잡지가 발행되고, 잡지인이 출현했다. 창간호가 중간호가 된 경우도 많았을 정도로 잡지 발행 환경이 열악했음에도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되면서 우리 글로 된 잡지발행에 의욕을 보인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 미디어의 역사에서 잡지의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이 가장 컸던 시기는 1950년대라고 평가된다. 한국전쟁이후 읽을거리와 대체 교양, 오락수단이 드물었던 시기 잡지가 오락과 교양의 매우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었다.

해방이후 1950년대에 출현한 여러 잡지 가운데 대표적인 종합지로 서울신문사에서 창간한 『신천지』(1946년 1월~1954년 9월), 김종완이 발행한 『희망』(1951년 5월~1963년 7월), 황준성이 창간한 『신태양』(1952년 8월~1961년 6월), 장준하가 창간한 『사상계(思想界)』(1953년 4월~1970년 5월), 그리고 주요한이 발행하던 홍사단계통의 『새벽』(1954년 8월~1960년 12월) 등이 있다. 이런 잡지 발행을

* 이 연구는 2012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의 연구자원을 받았습니다.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책임연구원(properk@hanmail.net)

주도한 인물 가운데 언론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은 장준하, 주요한 등으로 매우 드물다. 당시 교양과 오락을 제공하는 잡지들이 활발하게 발행되었지만, 잡지 발행을 주도한 인물 가운데 시사적이고, 공공적인 문제를 다루는 언론인으로서의 성격이 뚜렷했던 인물들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장준하는 한국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에서 “시대적 사명, 그 알찬 내용과 품위 등에 있어 한 시대를 그야말로 선풍처럼 휩쓸고 갔고, 그 말은 바 소임 또는 사명을 완수한 잡지”(여석기, 1995, 135쪽)라는 평가를 받는 월간 잡지 『사상계』를 발행하여 잡지 저널리즘의 영향력을 당시 주요 신문 못지않게 키운 잡지언론인이었다. 1962년 필리핀 막사이사이재단이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평가되던 막사이사이상 언론·문학부문상 수상자로 장준하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을 때, 『동아일보』가 그의 수상을 축하하는 사설을 게재한 것이나(『동아일보』1962. 8. 21 2), 제3공화국 정부가 언론 통제를 목적으로 1964년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제정하자, 이 법 시행을 반대하는 자유언론수호 국민대회가 결성되었을 때 장준하가 그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것은 언론계에서의 그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동아일보』, 1964. 9. 7. 1).

이와 같이 장준하는 해방이후 한국 현대 언론과 언론사상의 역사에서 잡지를 통해 언론활동을 전개하고, 잡지 활동을 통해 언론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과 사상을 제시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잡지매체를 수단으로 한 언론 활동으로 장준하만큼 사회적으로 그 영향이 컸던 인물은 없었고, 잡지매체의 사회적 위상의 측면에서 앞으로도 거의 출현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장준하의 언론사상은 한국 현대 언론사상의 형성과정에서 매우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준하의 언론사상의 성격과 그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는 작업은 연구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장준하의 한국언론사적, 한국 현대언론사상사적 의미에 주목하여 그의 언론사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2. 기존 연구와 연구문제

1) 언론사상의 의미

이 글에서 언론(言論)이란 시사적인 문제와 현상에 대한 보도 및 논평 활동을 뜻하는 저널리즘(journalism)의 우리말 표현으로 이해한다(Kovach & Rosenstiel, 2007/2009 참조). 사상이란 인간생활이나 사회현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체계 내지 정합성을 이룬 사고, 의식 내용으로서의 견해, 관점, 태도를 의미한다¹⁾. 알철(Altschull, 1990/1993)은 언론관, 언론의 이데올로기, 신념체계를 비슷한 의미로 사용했는데, 이런 표현들은 언론사상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저널리즘사상 즉 언론사상은 “보도와 논평기능을 갖는 저널리즘 매체로서의 언론현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체계를 갖춘 사고, 의식의 내용으로서의 견해, 관점,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저널리즘 매체로서 신문이 보도 기능을 강조한 매체라면, 잡지는 해설과 논평기능에 중점을 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잡지의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사상(思想)은 “(1) 어떠한 사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고나 생각, (2) 판단, 추리를 거쳐서 생긴 의식 내용, (3) 논리적 정합성을 가진 통일된 판단 체계, (4) 지역, 사회, 인생 따위에 관한 일정한 인식이나 견해”로 설명된다(http://www.korean.go.kr/09_new/index.jsp).

언론적 기능은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 해설하고, 사회적인 이슈를 제기하며, 여론을 선도하는 역할을 통해 전개된다.

2) 기존 연구 검토

장준하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그의 정치활동과 그가 발행한 『사상계』와 관련해서 연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상계』의 담론 분석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 장준하의 논의도 포함해 연구되기도 한다. 장준하의 활동 가운데 특히 정치활동이 역사적으로 더 주목되고, 1950년대와 1960년대 한국 지성사에서 차지하는 『사상계』의 위상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가운데 장준하의 언론사상과 관련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주제와 관련되는 본격적인 연구는 정진석이 1983년 『정경문화』에 발표한 “사상계와 장준하”가 그 최초로 평가된다²⁾. 이 글은 『사상계』의 창간 과정과 주요 내용 및 장준하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고찰했는데, 정진석은 장준하가 김 구 등 상해 임시정부 요원들의 영향을 받은 민족주의 사상, 그의 성장과정과 교육을 통해 배운 인본주의, 서구 기독교 사상에서 배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사상계』를 통해 확신시키려 했다고 평가했다. 지명관(1995)의 “구국과 혁명의 언론”은 장준하의 언론활동을 중심으로 살펴 본 유일한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지명관은 장준하에게 언론이란 언론운동이었고, 목숨을 건 독립과 애국을 향한 투쟁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그에게 언론의 중립이란 사치스러운 언어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장준하 20주기 기념학술대회 발표문으로 여러 면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민족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장준하의 정치평론을 연구한 김대영(2002)은 장준하가 민주적이며, 균형 잡힌 언론관을 지녔다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민족우위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민족주의는 관용의 정신과 상충하는 한계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후속연구에서 김대영(2003)은 장준하가 인식한 민주주의를 ‘한민족의 민주주의’, ‘세계 속의 민주주의’, ‘이분법의 민주주의’로 구분해 설명하면서, 그의 정치사상은 그가 활동했던 당시의 시대적 맥락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는 장준하의 사상체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대영의 연구는 장준하의 언론사상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장준하를 주제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사상계』에 관한 연구는 장준하의 잡지활동과 사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용성(1996)의 박사학위 논문 “한국 지식인잡지의 이념에 대한 연구 : 『사상계』를 중심으로”는 지식인 잡지라는 시각에서 『사상계』의 잡지이념을 본격적으로 고찰한 최초의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결론에서 이용성은 1950년대 『사상계』는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과 세계적 보편성을 인정하는 민족주의, 서구문화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민족문화 형성을 주장하다가 1958년부터 대항 잡지로 변신해갔다고 설명했다. 또한 1960년대 들어 『사상계』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결국 장준하의 정당 활동이 시작된 것은 당대의 정치현실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평가했다³⁾.

김건우(2002, 2003)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1950년대 담론생산에서 차지하는 『사상계』의 위치를

2) 이 글은 1984년 『한국 현대언론사론』에 수록되었고, 2001년 “민주 투사 장준하와 사상계”라는 제목으로 『역사와 언론인』에 재수록되었다.

3) 이 연구는 일부 보완하고, 1960년대 출현한 대표적인 지식인잡지 『창작과 비평』의 등장의 성격을 검토한 후속연구 2003)를 묶어, 『『사상계』와 비판적 지식인 잡지 연구』(2012)로 간행되었다.

검토하고, 『사상계』에 수록된 문학분야 담론을 분석했다. 그는 1950년대 『사상계』는 한국 공론영역의 장을 확보하는 매체였고, 이 매체에 문학과 아카데미즘의 한 줄기가 공론영역의 장의 핵심 위치에 있었다고 평가했다. 『사상계』의 자유민주주의론을 고찰한 이상록(2010)의 박사학위 논문은, 『사상계』의 논설을 ①자유민주주의·산업화병행론, ②산업화 우선의 신생국 민주주의론, ③근대화론에 비판적이었던 민중 중심 민주주의론으로 구분하여 그 논리적 특징을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장준하의 글은 자유민주주의·산업화병행론으로 구분해 설명되었다. 이상에서 간단히 살펴보았듯이 장준하의 언론 사상을 학술적으로 접근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이 언론사상의 관점에서 장준하의 사상을 처음으로 고찰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3) 연구문제

이 연구는 장준하의 언론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에 대해 문헌연구방법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장준하의 언론에 대한 초기 인식은 어떤 과정으로 형성되었는가?

둘째, 장준하의 언론사상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장준하 언론사상의 성격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3. 장준하의 언론에 대한 초기 인식 형성과정

1) 중학생시절의 언론에 대한 이해

장준하가 언론에 관심을 갖고, 직접 잡지를 발행하도록 이끈 계기는, 그가 밝힌 바와 같이 그가 중학교에 입학한 14세 때부터 3년간 『동아일보』가 주최한 문맹퇴치운동에 학생계몽대원으로 참여한 데서 시작된다. 자신의 성장기에 신문을 읽고 신문이 주최한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서 신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체험적으로 느끼고, 인식한 것이다. 장준하는 평안북도 삭주군 외남면 청계동 첩첩산골에서 성장했다. 그곳에 일주일분을 모아 들어오는 한 부의 신문 『동아일보』를 그의 조부가 받아보셨다고 한다. 그렇게 신문을 접하다가, 평양 숭실중학교에 입학했는데,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교 게시판에 『동아일보』의 브나로드운동(문맹퇴치운동) 참가 권유 포스터를 보고, 학생계몽대로 참여했다. 장준하는 동아일보사가 실시한 3일간의 강습을 받고 순사들의 감시를 받으며, 한 달 동안 고향에서 계몽활동을 벌였다.

그런데 장준하가 중학생이 되기 직전인 1929년에 시작되어 1934년까지 전개된 『조선일보』의 문자 보급운동과 『동아일보』의 브나로드운동은 단순한 문맹퇴치운동이 아니었다. 1920년대 후반 일제의 한국민족 말살정책이 강화되면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 민족 언어와 민족 문자를 보존 발전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⁴⁾. 한글맞춤법통일안 사용 보급을 명분으로 시작된 농촌계몽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받으며 확대되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이 운동이 일종의 민족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경계하여, 1935년부터 신문사가 주관하는 문자강습회를 금지시켰다(정진석, 1999). 따라서 이 시기 신문사의 문자보급운동은 단순히 한글만 보급한 것이 아니라 글을 모르는 민중에게 한글과 함께 민족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그 후 한국민족의 언어문자 생활과 민족문화 창조의 과학적 기초를 튼튼히 한 사업으로 평가된다(신용하, 2005). 마침 이 기간 중학생이었던 장준하는 3년 동안 학생계몽대로 활동하면서, 이때부터 신문의 역할과 영향력을 인상 깊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다음은 당시 장준하의 생각을 잘 보여준다(장준하, 1963, 355~356쪽; 장준하선생 10주기 추모문집 간행위원회, 1985a, 146쪽)⁵⁾.

나의 지도자적인 대상으로, 아니 당시 우리 온 겨레를 지도하고 있는 존재로 아주 믿어 버리게 되었다. 실로 이 무렵 나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는 비극의 나라였으며 철혹장막과 같은 절망의 나라였다. 이때에 모든 청년들은 거개가 이와 같은 비극과 절망 속에서 자포자기해 버리거나 아니면 겨우 일제에 붙어 호구책으로 입신출세의 길을 노리거나 하는 것뿐 아무런 희망과 장래의 징조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오직 동아와 조선이 있었던 것이다. 이 두 신문만이 캄캄한 우리 조국을 비춰 주던 유일한 등불이었으며 희망이었다. 최소한 그때 나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이와 같이 학생시절 장준하는 당시 조선인 경영 신문들이 “영리적이기보다는 어디까지나 민족의 공기(公器)로서 민중의 참 목탁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기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했다(장준하, 1963, 356쪽; 문집3, 147쪽). 그 후 장준하는 신문과 신문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기 시작했다. 동화, 만화에서 시작해 차츰 명승고적 소개문, 시, 중요 논설 등 1년에 10권이 넘는 스크랩북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신문을 더 가깝게 생각하고, 신문주최 행사에도 적극 참여했다. 이 무렵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계몽적 성격의 각종 강습회와 강연회 등을 자주 개최했는데, 장준하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가서 들었다. 1959년 『사상계』가 주최한 전국 순회 문화강연회는 일제강점기 신문사 행사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장준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장준하, 1963, 360~361쪽; 문집3, 150쪽).

내가 학도병에서 탈출한 것도, 임정과 광복군에 가담한 것도, 그곳에서 독립투쟁의 이름으로 『등불』, 『제단』 등의 잡지를 만든 것도 모두 그 정신을 조선과 동아에서 배운 것이었으며 부산 피난시에 국민사상의 정화와 민권 수호의 목표아래 『사상』지를 낸 것도, 현재의 『사상계』를 하고 있는 것도 모두 그 시절에 밝혀진 사상의 소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이 장준하는 10대의 학생시절부터 당시 신문과 신문사 주최 행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

4) 이런 상황이었지만 당시에는 한글맞춤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언어와 문자생활의 규칙을 통일시키는 일이 필요했다. 1921년 12월 설립된 조선어연구회는 1931년 1월 조선어학회로 개칭하고, 한글맞춤법통일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1933년 10월 19일 <한글맞춤법통일안>을 제정했다. 조선어학회는 통일안 제정과정에서도 그 맞춤법을 사용 보급하는 사업을 전개했다. 조선총독부와 박승빈 등 계명구락부는 표음주의 철자법과 관행주의를 주장하며 <한글맞춤법통일안> 보급을 방해했다(신용하, 2005).

5) 장준하선생 10주기 추모문집 간행위원회(1985)가 발행한 『장준하문집』 세 권은 이하에서 문집1, 문집2, 문집3으로 줄여 쓴다.

경험을 바탕으로 신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런 인식에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앞날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더해져 잡지라는 매체 발행으로 실천한 것이다.

2) 광복군시절 잡지발행 경험과 언론 인식

이러한 그의 인식은 광복군 훈련을 받던 기간 잡지를 만들어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했다. 장준하는 1944년 일본군 학도병으로 징집되어 훈련받은 후 중국 서주(西州)에 주둔한 쓰가다(塚田)부대에 배속되었는데, 그해 7월 다른 네 명의 동지와 부대를 탈출했다. 목숨을 건 탈출이 성공한 후, 안휘성(安徽省) 임천(臨泉)으로 가 그곳 중국 중앙군관학교 임천분교의 한국 광복군 훈련반에 입소해 군사 교육을 받았다. 거기서 잡지 『등불』을 만든 것이다. 힘든 훈련 상황에서 발표와 토론 모임을 만들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에 시, 소설, 생활수기, 만화를 곁들였다. 김중엽, 윤재현과 붓으로 써서 끈으로 묶고, 헌 내의를 뜯어 빨아 풀질을 해서 표지를 만들어 램프등의 표지화까지 그렸다(문집2, 104쪽). 한 권을 만들고 곧 이어서 2호를 만들었다. 필사해 만든 잡지 두 권이 만족스러울 정도로 잘 만들어져 동지들이 좋아하며 서로 먼저 보겠다고 야단법석이었다고 한다. 잡지 제호를 『등불』로 한 것은 “진정 우리들의 뜻대로 등불로서 불을 밝히고, 앞장서 길을 밝히며 꺼지지 않는 등으로 이 민족 누구에게나 손에손에 들게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다. 장준하는 이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문집2, 광복군 훈련반에서 3개월, 104쪽).

이것이 나와 잡지와와의 최초의 인연이 되었다. 말하자면 효시인 것이다. 세상이 말하는 출판업자나 잡지 발행인으로서의 그 출발이 이때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그 이상의 긍지를 가지고 있다. 그 이상의 것이다. 또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나는 붓글씨 한 자 한 획을 그를 때마다 손에 힘을 넣었고 그 힘은 나의 신념에서 솟아올랐다.

광복군 훈련을 마치고 중경(重慶) 임시정부에 도착한 후 장준하는 『등불』3호를 발행했다(문집2, 72~73쪽). 임시정부 선배들의 반목과 과당행위에 실망하고 이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면서 교양물과 문예물도 수록하여 종합잡지로서의 체제를 갖췄다고 한다. 3호부터는 150부를 등사해 임정 요인들과 광복군 산하 모든 기관의 주요 인사들과 중경 교포에 배포했다. 처음 2부로 시작한 『등불』이 150부로 발전하고, 잡지를 읽은 사람들과 여러 선배들이 격려하면서 3호에 이어, 4호와 5호를 발간했고, 5호는 8절지 1면 짜리 회지도 발간하는 등 전부 6호를 발간했다. 장준하의 의지와 열정으로 6호까지 발행된 『등불』에 대해, 그는 “시대적인 민족 진로를 제시한 편집 목표를 향해 조금도 주저 없이 용감한 필봉을 휘둘렀던 잡지”로 평가했다(문집2, 73쪽). 잡지의 역할을 민족의 진로를 제시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실제 잡지를 발행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는 값진 경험을 한 것이다.

장준하는 이어 1945년 4월 미군 전략첩보대(OSS Office of Strategic Service 현재의 중앙정보부)에서 한반도 비밀 침투를 위한 특수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의 틈을 내어, 잡지 『제단』 1, 2호를 발간했다(문집2, 226~234쪽). 『제단』은 조국을 위해 죽음을 각오한 젊은 청년들이 정말 피로써 쓴 듯 비장한 결의를 담은 유언집 같은 잡지였다. 그는 『제단』에서 독립운동 하는 모든 선배들의 단결과 행동동일을 호소하여 많은 선배, 동지들에게 자극을 주었다. 『제단』은 초판 3백부를 발행하여, 미국에 있는 독립운동단체

와 여러 인사들에게도 발송해 대환영을 받았다. 임시정부의 김 구와 김규식선생은 격려사를 보내 잡지발행을 격려했다. 『제단』은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해, 특수부대의 임무가 끝나면서 2호를 발행하고 중단되었다. 이와 같이 광복군시절 어려운 여건에서 장준하가 열정과 정성으로 『등불』과 『제단』을 발행한 경험은 그가 민족에 기여할 수 있는 자신의 역할을 잡지 발행 사업으로 설정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3) 해방이후 『사상』 발행 경험과 언론 인식

해방이후 장준하가 본격적으로 잡지발행에 관여한 것은 1950년 문교부의 국민정신계몽 담당관으로 있다가, 1952년 문교부 산하기관인 국민사상연구원의 기획과장으로 발탁된 때부터였다. 연희대학교 총장 백낙준은 한국전쟁 직전 문교부장관에 취임했는데, 1951년 3월 전쟁으로 파괴된 국민사상을 바로 잡고 민족의 사상적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임시수도 부산에서 국민사상지도원을 설립했다. 국민사상지도원은 ‘사상문고’를 간행하고, 사상 강좌 등의 강연회를 개최했다. 국민사상지도원은 1952년 국민사상연구원으로 이름을 변경했는데, 그 기관지로 1952년 9월 월간지 『사상(思想)』을 창간한 것이다(문집2, 75쪽). 백낙준 문교부장관은 국민사상연구원장을 겸직했고, 장준하는 연구원 일을 총괄하면서 『사상』의 주간으로 활동했다. 이때 장준하는 『등불』과 『제단』발행 경험을 바탕으로 폐허가 된 조국 재건의 사상적 기초를 놓기 위해서는 잡지발행이 필요하다는 신념아래 정열적으로 잡지 발행 사업을 추진했다고 한다(서영훈, 1995). 『사상』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민정신을 바로 잡고 민족이 가져야 할 사상적 체계 확립의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 교양지였다.

장준하는 『사상』이 1952년 12월 제4호 발간 이후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발행이 중단되자, 개인적으로라도 『사상』을 속간할 생각으로 국민사상연구원을 사직했다. 이러한 그의 집념을 격려하고 지원한 사람이 백낙준이었다. 백낙준은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언론 연구와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참여했던 인물이었다⁶⁾. 백낙준은 해방이후 신문학 연구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1946년 12월 설립된 신문과학연구소의 초대 소장이었다. 신문과학연구소에서 1947년 조선신문학원을 설립해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신문기자 양성 교육을 시작했는데, 백낙준은 강사로도 활동했다(정진석, 1995, 190~193쪽; 정진석, 2001).

장준하가 백낙준을 찾아가 『사상』을 속간하겠다고 하자 백낙준이 좋은 생각이라며 칭찬하고, 잡지 편집에 관한 자신의 의견도 말해주면서 얼마간의 자금을 주어 격려한 것은, 이와 같이 백낙준 자신의 언론에 대한 이해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한국전쟁으로 궁핍하고, 혼란하던 당시 자본도 없는 장준하가 혼자서 잡지를 만들겠다는 의지에 대해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선배로부터 격려 받고, 잡지 만드는데 쓸 비용도 일부 지원받은 것은 장준하의 잡지 창간 의지를 확고하게 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문집3, 90~91쪽)⁷⁾.

6) 백낙준은 일제강점기였던 1913년 중국에 유학해 량치차오(梁啟超)의 언론활동에 영향을 받았고, 그 후 미국에서 신학과 역사학을 연구하면서 한국의 기독교 전파에 언론과 출판사업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백낙준, 1973; 정진석, 1995, 181~184쪽).

7) 평안북도 정주 출생으로 장준하의 신성중학교 선배였던 백낙준은 그 후에도 여러 방식으로 장준하의 잡지 발행을 후원했다. 『사상계』가 창간된 이후 여러 차례 자신의 글을 『사상계』에 기고했고, 사상계사에서 『교육문화』, 『역사학보』, 『진단학보』, 『국어국문학』, 『동방학지』 등의 학술지를 발행하도록 주선했다(정진석, 1995). 『사상계』사무실이 백낙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준하가 잡지 『사상계』를 창간하던 무렵 가졌던 언론에 대한 인식은 그가 10대 학생시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사회 계몽운동에 직접 참여하며 강력한 인상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두 신문을 읽으면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 후 직접 『등불』, 『제단』, 『사상』과 같은 잡지를 발행하면서 매체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 실감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인식이 형성되었다. 또한 언론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던 백낙준의 지원과 격려도 장준하의 언론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장준하의 언론 사상

1) 잡지 언론의 역할에 대한 인식

해방이후 장준하가 발행한 첫 잡지 『사상』은 국민사상연구원의 기관지였지만, 잡지발행과 편집 방향은 장준하가 주도해서 수립되었다. 장준하의 뜻이 반영된 창간사에서 밝힌 『사상』의 목적은 국민의 사상과 기풍을 진작하고, 민족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학도와 지식인들에게 “우리 민족의 교양재로서 또한 모색하는 지성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이었다(『사상』, 1952년 9월호, 8쪽). 이에 따라 『사상』의 편집은 “특히 연구적이며 이념적인 것에 치중”했다(장준하, 편집후기, 76쪽). 이와 같은 잡지발행의 목표와 대상독자는 그가 『사상』 5호를 위해 모은 일부 원고로 속간을 준비하다가 『사상계』를 창간하게 된 것이므로, 『사상계』 창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1955년 1월 편집위원 체제를 도입하면서, 『사상계』가 지향하는 잡지의 역할이 “우리 사회에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공기(公器)”로서 구체화되었다(문집1, 109쪽). 이때 밝힌 『사상계』의 발간정신은 민족과 국가를 위한 엄숙한 사명으로 장준하 자신이 스스로 결머진 역할이며, 잡지 발행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문집1, 120쪽). 1955년 8월호 권두언에 수록한 이 현장은 많은 독자들이 거의 암송하다시피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한다. 다음은 그 일부이다.

또다시 역사를 말살하고 조상을 모독하는 어리석은 후예가 되지 않기 위하여, 자기의 무능과 태만과 비겁으로 말미암아 자손만대에 누를 끼치는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이 역사적 사명을 깊이 통찰하고 지성일관(至誠一貫) 그 완수에 용약매진 해야 할 줄 안다. ...

이 지중(至重)한 시기에 처하여 현재를 해결하고 미래를 개척할 민족의 동량은 타고기명(託孤寄命)의 청년이요, 학생이요, 새로운 세대임을 확신하는 까닭에 본지는 순정무후한 이 대역의 등불이 되고 지표가 됨을 지상의 과업으로 삼는 동시에 종으로 오천년의 역사를 밝혀 우리의 전통을 바로잡고, 황으로 만방의 지적소산(知的所産)을 매개하는 공기(公器)로서 자유·평등, 평화, 번영의 민주사회 건설에 미력을 바치고자 하는 바이다.

장준하는 한국전쟁이후 물질적, 정신적으로 방황하던 민족적 시련기에 “단순한 기업적 영리욕이나, 비속한 공명심이나, 어떤 정치적 출세주의”로 잡지를 창간한 것이 아니라, 지적소산을 매개하는 공기

준총장시절 연희대학교가 매입한 한청빌딩(백낙준, 1983, 261쪽)에 있었던 것도 백낙준의 도움으로 가능했을 것이다.

로서의 역할을 자임한 것이다. 그것은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후손들에게는 이런 고생을 시키지 않기 위하여”(문집1, 274쪽, 281쪽), 나라 잃고 고통 받던 일제식민지 시기와 같은 상황을 후손에게 다시는 물려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이 나라 백성이 살 길을 잃고 갈 바를 몰라 헤매일 때에 감히 그 길잡이 지로서의 기치”(문집3, 14쪽)로 “우리 사회의 어떤 단 한 구석에서라도 밝은 빛과 짙 소금의 직분을 다하여 보겠다는 염원”으로 잡지를 발행하기 시작한 것이다(문집3, 260쪽). 이처럼 『사상계』 창간 초기 장준하가 생각한 잡지의 역할은 지적 소산을 매개하는 공기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국민의 등불이었다.

장준하는 또한 “문제점의 추적과 논리적 정립은 언론의 사명”이라고 인식했다(문집3, 111쪽). 사건의 원인과 의미를 추적하여 심층 해설하는 심층보도(depth reporting) 또는 해석저널리즘(interpretative journalism)을 설명한 것이다. 이런 유형의 초기 대표적인 사례는 1953년 9월호에서 이승만대통령이 지시한 한글간소화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체 지면 226면 가운데 130면으로 구성한 한글간소화문제 특집이었다⁸⁾. 언론기관으로서 한글간소화안이라는 정치 문제에 뛰어들었던 것만으로 끝낼 수는 없어, “계속 이것을 추적하고 그런 따위의 간소화안을 봉쇄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정리”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중이 담겨 시행하려는 점에서 정치문제였으나, 동시에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글자생활이라는 점에서 대중적인 의제이고, 국어학계의 주요 관심사였다. 『사상계』가 이를 심층해설과 논평으로 다룬 것은 지식인을 주요 독자로 하는 종합잡지가 시도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기획이었다.

이러한 편집기획 경험은 정치에 관심이 많던 장준하가 보다 적극적으로 언론활동을 전개하도록 이끌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장준하는 이승만정권말기의 정치 현실에서 점차 적극적인 저널리즘 매체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으로 발전했다. 1962년 『사상계』 창간 9주년을 맞아 쓴 권두언 “우리는 왜 『사상계』를 내는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문집1, 283~284쪽).

우리의 소신이 그러했기 때문에 단순히 소식을 전달하고 지식을 소개하는 의식 없는 계몽지로서 자처할 수는 없었다. 민주주의를 구축하고, 사회정의를 천명하고, 민족적 자세를 바로잡는 방향에서 우리들은 자신의 떳떳한 주장과 이념을 내세워야 했고 타락한 자유당의 폭정과 과감히 싸우지 않을 수 없으며, 무위무능했던 민주당의 시정을 가차없이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현 군사혁명 정권에 대해서도 그 정책의 시와 비를 공정히 판단하여 혁명과업 수행에 실책이 없도록 편달함을 우리들의 당연한 의무로 확신하는 바이다.

이와 같이 장준하는, 지적 소산을 매개하여 민주사회 건설에 기여한다는 상대적으로 정적인 잡지의 역할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구축하고, 사회정의를 천명하며, 민족적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의견을 주장하고, 정부를 감시, 비판하고 편달하는 저널리즘매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장준하는 “오직 후진에게 희망을 걸고 이 나라의 민도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노라. 온 국민이 올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계몽의 역군이 되겠노라. 이 나라에

8) 한글간소화문제는 1953년 4월부터 1954년 9월까지 정부와 민간 사이에 한글철자법 개정을 둘러싸고 벌여졌던 일련의 대립과 갈등사건을 말한다. 구식철자법을 좋아하고 낯선 현행 철자법을 어렵게 여긴 이승만대통령이 구시대적 한글관에 의한 정책지시와 이를 따르는 추종세력들의 과잉충성으로 빚어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한글간소화는 언론과 지식인들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았다(오영섭, 2004, 567쪽).

민권이 확립될 때까지 곳곳이 싸우겠노라. 이 나라에 바른 표준이 서기를 기원하겠노라.”고 다짐했다(문집1, 262쪽). 장준하가 생각한 이와 같은 잡지의 역할은 전통적으로 잡지의 역할로 말해지는 교양과 읽을거리 제공 역할보다는 적극적인 정책감시와 비판, 의견제시, 여론 조성, 교육, 계몽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잡지의 역할은 장준하가 높이 평가한 언론정신이 반영된 것이었다. 장준하는 신문이 여론을 조성하는 기관인데, 경제적으로 특혜를 받으며 모든 언론기관이 자기를 잃고 무권위하여 여론이 아주 혼란해지고 여론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신문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영미신문들의 민주주의 정신을 굳이 들추어 볼 필요도 없이 우리 초창기의 신문정신을 본받으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집3, 153~154쪽). 그가 말한 초창기 신문정신은, “어떠한 권력과 금력에 꺾이지 않는 신문도(新聞道)를 확립하고,” “항상 보수 세력과 대결하여 민권신장을 부르짖고 자주독립사상을 고취”하면서 “동포의 개화정신과 생활개선을 직접 고취 지도”한 개화기의 『독립신문』의 언론활동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의견제시와 해설 및 비판기능을 강조하는 한편 1962년 장준하는 『사상계』가 공론장(public sphere)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사상계』는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한국 민족의 것이요 이 나라 방방곡곡에 퍼져 있는 『사상계』가족을 위한 것”이므로, 『사상계』를 “‘메아리’로 해서 지식인과 독자들 간의 진지한 토론을 하게 하는 씬포지움의 자리”라는 것이다(문집3, 42쪽). 이와 같이 장준하는 잡지언론이 국민교육과 계몽의 역할, 의견제시와 해설, 비판 역할 및 지식인과 독자 간에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간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인식했다.

2) 언론의 본질과 독립성에 대한 인식

장준하는 “언론이란 항상 민중 편에 서서 치자의 그릇된 정치로부터 그 민중을 보호하고 치자의 비정을 가차 없이 고발하고 또한 민중을 대변하는 것”이 그 본래의 길이라고 인식했다(문집3, 33쪽). 이와 같은 언론의 길은 해방이후 그가 개화기 『독립신문』을 처음 읽고 평가한 언론의 모습이였다. 그가 잡지매체를 발행한 목표는 처음에는 학생과 지식인들을 위한 교양과 지성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이었는데, 1950년대 후반이후 이러한 언론활동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또한 참 언론의 생명은 “‘알 권리’와 ‘알릴 권리’”이며, “이것이 『사상계』가 지닌 언론관이다. 바로 그런 정신과 정성으로 일관된 싸움을 해왔다.”고 말했다. 알 권리와 알릴 권리는 공적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보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장준하가 이 개념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다.

장준하는 또한 언론의 생명이 독립성에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장준하, 1963, 352쪽, 문집3, 143쪽).

언론의 생명은 그 독립성에 있으며, 그 권위는 자유롭고 공명정대한 행사에 있다. -이것은 적이나마 평소 나의 언론에 대한 지론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와 같은 생명과 권위가 없는 언론은 있으나마나라기보다 오히려 그 국가와 사회에 무익백해의 존재물이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생명이 흐르고 권위가 지켜지는 사회만이 참 민주사회인 것이며, 그 사회만이 우리가 희구하는 사회요, 참으로 그 사회구성원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장준하는 신문의 길 즉 신문도(新聞道)의 확립을 “어떠한 권력과 금력에 꺾이지 않는” 것으로 설명했다(문집3, 149쪽). 이런 인식으로 해방이후 신문들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치우친 보도로 사상과 정치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하면서, 『서울신문』이 미군정기에 좌익계열이 압도했던 건준의 “피알(P.R.)”을 담당했으며, 이후 자유당정권의 앞잡이로서 그리고 1963년 현재까지도 “국민에게 악덕을 반복 끼치고 있는 신문”이라고 비판했다(문집3, 152쪽). 미군정기의 『서울신문』의 논조에 대해서는 반공주의자인 장준하의 인식도 보여준다. 또한 이승만정권 시기와 박정희정권 시기의 『서울신문』이 정부기관지이지만 “엄연한 국민의 납세로 경영하면서 국민에게 이득을 줄지언정 국민을 기만하는 시책을 보도함으로써 집권 지속에 급급하는 건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하며, 언론의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다. “기자도(記者道)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다(장준하, 1963, 362~363쪽; 문집3, 153쪽).

한편 장준하는 4·19혁명에서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신문의 역할이 컸다고 높이 평가했으나, 4·19이후 사회적 혼란을 조성한 책임과 5·16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던 책임의 최소한 반이 『동아일보』를 비롯한 신문들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신문들이 “5·16후에는 도무지 병어리가 된 것으로 나는 본다. 그만한 시대적인 대변천이 있음에도 언론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일언의 코멘트도 하지 못하던 우리 신문들을 후세의 사가는 뭐라고 말할까?”고 지적했다. “5·16이후 이 나라의 언론은 자의에서였건 타의에서였건 타락 어용 등 비난을 받아왔으리만큼 필봉이 무디어져 “모든 언론기관이 관보화”되었다는 것이다(문집1, 62쪽).

5·16이후 언론활동을 주도하는 신문들이 이렇듯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장준하는 더욱 냉철하게 비판정신을 가다듬었다(문집1, 284쪽).

사상계는 과거나 현재를 막론하고 어떤 특수한 개인이나 집단의 기관지로 전락한 일이 없으며 또한 장차도 그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지는 어떤 개인이나 당파를 맹목적으로 변호하거나 또는 무조건 비방하는 태도를 극력 배격해 왔으며, 그러한 입장은 미래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본지는 항상 냉철한 비평정신을 견지하되 그것이 건설적인 것이 되도록 진력하고 있으며, 파당적인 편견이 아니라 보편적 진리를,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 과학적 정확성을, 저속한 선정이 아니라 고결한 미를 구하기에 우리들의 모든 지혜를 기울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장준하는 비록 압력이나 통제가 있다 해도 언론의 독립과 비판, 감시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인식으로 장준하는 4·19이후 민주당정권 시절 국토건설본부 기획부장으로 활동한 경력에 대해, “나라를 위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원래 표방하고 잡지를 시작한 그 언론의 본도에서는 일탈된 외도임이 틀림없었다.”고 자평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할 때 언론이 나라를 위하는 방법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후회도 되지만 그때로서는 부득이한 바도 없지 않았다”는 것이다(문집3, 33~34쪽). 당시 상황과 분위기에서 불가피하게 그 일을 맡았으나, 언론인으로서 현실 정치에 참여한 것은 올바른 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이다.

3) 언론의 자유의 본질과 한계에 대한 인식

장준하는 “민주주의를 국시로 하는 이상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도로 보장되어야 하고 또 그것이 국가의 법질서 안에서의 일이고 보면 그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하여 자유주의 언론이론의 시각에서 언론의 자유를 설명했다(문집1, 108쪽). 그러면서 동시에 “자유란 무엇이며 민주가 무엇인가? 자유와 민주는 참여인의 권능이다. 자유의사로부터 나오는 자유에 대한 제약과 의무행은 언제나 감수되는 것이 인간행동의 원리이다. 이것은 인류사에서 정치제도가 발전할 때 제일 먼저 발생한 사상이다”라고 하여 자유의 한계를 분명히 지적했다(문집1, 142쪽). 같은 맥락에서 “언론의 자유라 하여 아무데서나 아무 소리를 말로 또는 글로 표시하여 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공질서를 위태롭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데 이의를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고 하여 언론자유 한계를 설명했다. 장준하는 국가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되지만, 언론의 자유에도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1965년 발표한 “법의 정신과 질서—자의적인 법제정과 법운영의 현실”에서 언론자유 한계를 다음과 같이 “명백하고도 현존한 위험성”의 개념으로 설명했다는 점이다(문집1, 108쪽).

세계적으로 공인된 원칙은 만원 극장 속에서 별안간에 “불이야!”하고 외친다든가(홍즈대법관), 휘발유가 가득 든 썰매에 성냥을 그어대는 것(다그라스 대법관)과 같은 ‘명백하고도 현존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안과괴의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되어 있다. 우리도 이 선을 넘어서는 것은 언론자유 탄압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언론법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원칙(clear and present danger test)은 미국 연방최고재판소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인정하지만, 다른 헌법상의 기본권과 충돌할 때에 부득이 제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제시한 원칙이다(이구현, 1999). 물론 이 원칙은 표현이 행해지면 심각한 해악이 발생할 것이며, 우려되는 위험이 즉각적이라는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해야 된다고 인식되어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사후제한 원칙이다(이부하, 2006). 이와 같이 전문용어를 사용해 언론 자유 제한의 원칙을 설명한 것을 보면 장준하가 195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 새롭게 수용되던 구미 언론이론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수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미군정기 시절인 1947년 조선신문학원이 설립되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언론인 양성 교육이 시작되고, 일부 대학에서도 신문학 관련 과목이 개설되었으나, 구미의 언론이론들이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195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52년 9월부터 1953년 5월까지 유네스코 기금지원으로 미국 미네소타대학교(University of Minnesota) 신문학과에서 공부한 천관우가 1955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개설한「매스컴론」에서 미국의 커뮤니케이션이론을 강의하고, 매스 커뮤니케이션 개념을 소개하는 글을 발표한 것은 그 대표적인 초기 사례이다(천관우, 1955; 김영희, 2012, 146쪽). 이후 1955년부터 미국 국무부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6개월 기간의 연수를 받은 언론인들이 미국에서 발전한 언론 개념들을 직접 수용해 관련 논의들을 발표하기 시작했고(『신문연구』, 1959~1966, 1~11호 참조),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 관련 저작들이 번역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신문학전공 교수들이 내한해서

신문학을 강의하는 사례도 꾸준히 이어졌다(박기준 역사서문, 1954/1956, 2~3쪽; 『경향신문』, 1959. 3. 29. 3; 『경향신문』, 1962. 7. 15. 3; 『동아일보』, 1966. 6. 9. 5 등 참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도 1950년대 후반 우리나라 신문지면에 출현하기 시작한 개념이었다¹⁰⁾. 1950년대에 시작된 언론인들의 미국 연수를 계기로 우리나라에 구미 언론이론과 사상이 활발하게 소개되고, 수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장준하는 또한 “민권의 무기는 언론뿐이다. 독재정권은 권력과 금력과 총칼을 가졌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패는 언론뿐이다. 왜냐하면 언론은 불의로부터 힘입는다는 역사적 사실이 우리를 보장하기 때문이다.”고 하면서(문집3, 164쪽), 언론의 자유가 민주사회와 정의사회의 전제 조건이라고 인식했다. 민주적이며 정의로운 사회는 언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행사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한 것이다. 이어 장준하는 1972년 『씨울의 소리』 창간 2주년 기념 강연 “우리의 현실과 사회정의”에서 사회정의의 실현은 완전한 언론의 자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문집1, 67~68쪽).

그럼 그 사회정의란 뭐냐? 사회정의란 도덕법에 기초한 그런 것이 아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참 평등 그것을 요구하는 이념인 것이다. 근대 자본주의의 산물인 사회적 불평등 또는 자본가의 착취에 대항하는 슬로건으로서의 현대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즉 정치적인 정의 혹은 생존권과도 같은 개념이다. …그러므로 참 인간으로서의 가치 있는 생존의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 즉 생활권의 충족 이것이 곧 사회정의의 실현이 되는 의미이다. …

그러면 그 사회정의는 어떻게 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한 마디로 언론 출판의 완전한 자유 없이는 실현될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무엇이 사회정의이며 무엇이 부정의인가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매스컴이기 때문이다. 언론자유가 없는 한 이 땅에 언제까지나 사회정의란 기대할 수가 없고 그 사회정의 실현이 없는 한 이 나라의 위기는 언까지나 극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직 언론의 자유가 있고 사회정의가 실현되어 있어야 만이 나라가 살 수 있음을 거듭 말해 둔다

이처럼 장준하는 사회정의에 대해 정치적인 정의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의도 고려해서 설명했다. 이런 인식은 1954년 사상계사에서 발행한 브루너(Brunner)의 『정의와 사회질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일부는 번역되어 1953년 『사상계』 제2호에 먼저 발표되었다. 브루너는 책의 1부에서 정의의 원리를 설명하고, 2부 실천론에서 정치, 가정, 경제, 사회, 국가, 국제 질서 차원의 정의문제를 고찰했는데, 그의 논의는 당시 한국 상황에서 상당히 진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책 내용 일부가 『사상계』에 발표되고, 장준하가 그 논리를 수용해 설명한 것은 당시 장준하의 인식에 상당히 진보적인 일면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장준하는 또한 유신체제 도입을 위해 언론탄압이 강화되던 1972년 발표한 “사상계지 수난사”에서 언론의 자주성과 언론의 자유와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문집3, 21~22쪽). 당시 『사상계』는 폐간된 상태였고, 언론통제로 대부분의 신문들이 매우 위축되어 있던 때였는데, 언론에 대한 그의

9) 195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언론관련 서적이 일본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번역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으로 저널리즘 분야의 고전으로 평가되는 *An Introduction to Journalism : A Survey of the Fourth Estate in all its Forms* (1954)을 번역한 『新聞論』(朴琦俊 역, 1956), 미국의 대표적인 매스 커뮤니케이션 입문서였던 *Introduction to Mass Communications*(1960)을 번역한 『매스컴론』(장 용·박권상 역, 1963) 등을 들 수 있다.

10) 조사 결과 “屋外集會禁止의 理由는 무엇?”이라는 기사(『동아일보』, 1958. 11.30. 1면)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인식은 원칙에서 흐트러짐 없는 일관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자주성은 언론의 명맥이다. 언론의 권위는 자유스럽고 공평한 활동에 있다. 언론이 이 같은 명맥을 유지하고 이 같은 권위를 갖추고 있는 사회라야만 그것을 민주사회라 부를 수 있다. 이런 사회가 바로 우리 모두가 갈구하는 사회이며 또한 그러한 사회에서만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된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언론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정당당하게 그 권리를 행사하였는가에 정비례하여 얻어지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언론의 자유가 민주사회와 사회정의를 위해 우선적으로 전제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이지만, 장준하는 언론의 자유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쟁취하려고 노력해야 가능한 자유임을 잘 인식했다. 그는 “자유와 민권은 어느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민(民)의 손으로 쟁취되는 것일 뿐입니다.”(문집1, 264쪽)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문집1, 64쪽).

우리는 흔히 집권자를 향해 언론자유를 보장하라고 외친다. 그러나 자유사회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란 누구한테 보장을 받고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스스로 행사하여 누리면 되는 것이다. 뒤에 어찌 될 것이 마음에 걸린다면 그것은 벌써 언론의 타락이다. 언론의 자유는 그 언론을 구사하는 사람들 자신이 얼마나 정정당당하게 그 권리를 행사하였는가에 정비례하여 보장된다. 뭐가 두려워 말을 못하면 그럴수록 더욱 횡포를 자행하는 것이 지배자들의 생리이다. 그런 사람들만이 가득 찬 사회에는 영원히 언론자유 보장이란 없다. 노예사회에는 언론자유가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노예 자신들이 이미 그 언론의 자유를 바라지도 않을뿐더러 또 자유를 보장해준들 그것을 누릴 줄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언론계는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인식은 장준하의 인식이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한 수준임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장준하는 또한 “언론의 자유는 그가 평소애 정당하고 공명하게 행사하여 온 그 강도에 정비례하여 항상 보장되는 법이다. 일시 그것이 어떤 타세에 의해서 좌절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행사된 언론의 자유는 모든 국민의 가슴 속에서 되살아나오게 마련”이라면서 언론의 자유를 실천할 때, 비록 탄압으로 일시 좌절되더라도 국민의 마음속에 언론자유 개념이 인식되고, 되살아난다고 설명했다(문집3, 153쪽). 그런 적극적인 쟁취로서의 언론 자유에 대한 인식으로 장준하는 이승만정권 말기의 언론탄압에 대해 “눈과 귀를 막은 채 비등하는 여론을 무시하고 국민을 겹겹이 묶어세우고 언론을 봉쇄하고 간악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민의의 자유로운 발현을 일소함으로써 특권을 영원히 농단하려고 드는 자는 누구냐?”고 비판하면서(문집1, 211쪽), 자유당정권의 “비정(秕政)을 가차 없이 매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문집3, 22쪽). 이와 같이 장준하는 탄압을 받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한 언론의 역할을 당당하게 실천했다는 점에서 그의 언론관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언론 통제에 대한 인식

한편 장준하는 언론 통제에 대해 두 차원에서 이해했다. “언론 통제라는 것은 통제자 즉, 지배자가

환영하는 것은 쓰게 하고 말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못 쓰게 말 못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의 입을 막는 그것이다.”고 설명하여, 지배자가 원하는 것만 표현할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 인식했다(문집1, 62쪽). 이와 함께 “언론 통제란 지배자가 자기 임의로 만든 정책을 민중에게 강제 시행하는데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그저 비판 없이 오직 영합만 하는 민중으로 만드는데 그 내재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여,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정책 시행에 국민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도 언론 통제라고 설명했다(문집1, 64쪽).

일반적으로 미디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요인은 외적 통제와 내적 통제로 설명되는데, 외적인 주요 통제는 이데올로기적 차원과 정부, 광고주, 정보원 및 수용자에 의한 통제 등이 있다. 내적인 주요 통제는 언론 조직과 미디어관행 및 언론인 개인의 자율적 통제 등이 포함된다(Shoemaker & Reese, 1996/1997). 이 가운데 장준하는 외적인 통제에 속하는 정부의 통제를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다. 실제 장준하가 활동하던 시절 우리나라의 언론통제는 정치적, 법적인 통제가 압도적이었고, 광고주에 의한 경제적 통제는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언론의 기업화가 진전되면서 1970년대에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사상계』는 1962년 “판매방해 반품공세”라는 방식으로 정부의 간접적인 통제에 의해 경제적으로 큰 탄압을 받았는데, 장준하는 언론통제 개념에 이를 포함해서 설명하지는 않았다¹¹⁾.

5. 장준하 언론사상의 성격

이상에서 장준하의 언론에 대한 인식은 어떤 과정으로 형성되었는지 살펴보고, 그의 언론사상의 주요 논리와 의미에 대해 고찰했다. 앞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장준하 언론사상의 성격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장준하의 언론사상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장준하가 말한 대로 중학생 시절 3년 동안 『동아일보』의 브나로드운동에서 학생계몽대원으로 활동한 경험과 그 무렵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활발하게 전개한 전국 순회강연회 등의 행사에 참여하면서 형성된 신문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문자보급운동과 농촌계몽활동은 교육과 계몽을 통한 실력양성운동이었다. 이 시기 이러한 신문의 사회문화운동은 문화적 민족주의(cultural nationalism)로 설명된다(Robinson, 1988/1990).

그런데 장준하의 잡지발행 이념은 최남선과 연결 지어 설명되고 있다(정진석, 2001; 김건우, 2003). 최남선이 발행한 『소년』, 『청춘』 같은 잡지들은 문화적 민족주의 운동이 출현한 초기 잡지이다(Robinson, 1988/1990). 그리고 최남선이 죽었을 때, 『사상계』에서 그를 기념하는 특집호를 내고, 장준하가 그를 추모하는 권두언을 썼다.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의 잡지발행에 연결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사상계』에서 최남선에 대한 입장은 김준엽이 말한 대로 최남선이 친일한 것은 사실이지만,

11) 『사상계』는 1962년 박정희군사정부의 군정종식을 주장하는 특집으로 4월호에 이어 5월호와 6월호를 발행해 시중에 내어 놓기 바쁘게 판매되었다. 그러나 7월호는 정기독자 1만 6천부를 제외하고 시중에 공급한 6만 여부가 포장을 풀지도 않은 채 반송되었고, 부수를 대폭 줄인 8월호와 9월호도 수만 부가 반송되었다. 정부가 서적상을 위협해 전부 반송하게 만든 것이었다. 당시 주한 미국대사가 최고위원회에 이 사실을 확인하며 민정이양을 약속한 상황에서 언론기관을 그렇게 한다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추가 반품은 없었으나, 『사상계』는 빚더미에 희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타격을 받았다(문집3, 49~51쪽).

그의 학문적 업적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주간좌담, 1995, 76~77쪽).

한편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종합잡지로 평가되는 『개벽』(1920년 6월 창간되어 1926년 8월 72호로 폐간) 역시 문화적 민족주의 운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개벽』의 사회교양과 계몽적 성격, 문학에 대한 높은 비중, 학생과 지식인이 주요 독자층인 점(최수일, 2008 참조) 등은 『사상계』와 공통되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잡지발행의 목표나 사회적 역할 등에서 최남선이 발행한 잡지와 『개벽』의 정신이 『사상계』 발행에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준하 자신이 언급한 것처럼 일제강점기 장준하의 언론에 대한 인식은 주로 1920년대 문화적 민족주의의 연장선상에서 1930년대 신문이 전개한 계몽운동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여기에 광복군 훈련을 받으며 손으로 글을 쓴 잡지나마 직접 만들어 보았고, 이어 등사판으로 잡지를 발행하면서 얻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개혁과 계몽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매체에 대한 인식이 더욱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방이후 읽은 개화기의 『독립신문』의 내용 역시 장준하의 언론개념 형성에 인상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문, 잡지, 출판 등 인쇄매체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던 백낙준의 격려와 지원도 장준하의 잡지에 대한 인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쳐 장준하의 언론에 대한 초기 인식이 형성되었다. 이후 그의 언론사상은 크게 세 가지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사상계』창간 당시 그의 언론사상으로 이후 일관되게 나타나는 기본 사상은 청년층 계몽을 목표로 종합교양지를 발행하려는 민족주의적인 계몽언론사상(nationalistic enlightenment journalism)이라고 할 수 있다. 장준하의 잡지언론 활동은 나라를 잃어 고통 받고 서러웠던 식민지시절을 경험한 국민으로서 후손들에게 다시는 그런 고생을 시키지 않는 나라를 물려주어 못난 조상이 되지 않으려는 애국애족의 실천행위였다. 이를 위해 그가 자신의 역할로 선택한 청년층 계몽 수단이 잡지발간이었고, 잡지역할에 대한 인식이었다.¹²⁾ 장준하 자신도 “나는 독립운동, 혁명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사상계』를 만듭니다.”고 말했다고 한다(안병욱, 1995, 110쪽). 실제 그의 언론에 대한 인식과 표현에는 언론활동이 독립운동인 듯 조국과 민족에 대한 절절하면서도 금욕적인 사랑과 기독교적 순교자 정신이 느껴지는 경건함이 담겨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장준하의 정치평론에 대해 “항상 비감한 느낌을 자아내며 도덕적인 자기희생을 요구한다.”고 평가한 것과 같은 맥락일 것이다(김대영, 2003, 161쪽).

그러다가 1950년대 말 『사상계』가 정치적 의제에 대한 해설, 분석, 토론지로서의 역할 비중이 확대되면서 그의 논리도 일종의 해설저널리즘 또는 방향제시 저널리즘(orientating journalism)의 성격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방향제시 저널리즘이란 “이슈에 관한 배경, 논평,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저널리즘을 말한다(Bardoel, 1996, 이민웅, 2008, 74~75쪽에서 재인용). 이때부터는 교양과 오락의 제공이라는 전형적인 잡지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저널리즘매체로서의 역할을 더 중시하고, 스스로도 언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문집3, 143쪽). 또한 1962년

12) 1962년 막사이사이상 언론·문화부문상 수상자로 장준하를 선정하며 발표한 수상 결정서는, 그의 계몽언론사상을 “지식인들이 국가 재건에 정력적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불편부당한 잡지를 발간함에 있어서 성실성을 나타냈고 금전상의 이익이나 정치적 권력을 잡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한국의 새로운 세대를 계몽하여 그들로 하여금 보다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길을 찾게 하였다.”라고 하여 높이 평가했다(문집3, 41~42쪽).

이후 『사상계』에 대해 정치적으로 탄압이 심해지면서, 그의 입장에 정치투쟁적 경향이 뚜렷해졌고, 그의 언론에 대한 인식, 표현어휘와 내용도 점차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여 동의를 구하려는 일종의 주창 저널리즘(advocacy journalism)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명관이 장준하의 언론을 “1905년 장지연선생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이은 것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평가한 바 있고(지명관, 1995, 496쪽), 이진섭도 『사상계』의 논조를 시일야방성대곡류(이용성, 2012, 175쪽 각주 87에서 재인용)로 표현한 것과 비슷하게, 장준하의 글의 논조가 점차 비분강개(悲憤慷慨)적인 경향을 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³⁾.

한편 장준하의 언론에 대한 인식과 논의는 1950년대와 1960년대 한국 언론계와 학계에서 새롭게 인식되어 사용하던 개념과 이론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한 것으로 당시로서는 상당히 선진적인 논리로 평가된다. 해방이후 한국의 현대 언론사상은 일제강점기부터 언론계에서 활동한 언론인들의 언론에 대한 인식을 기본으로 하여 미군정기이후 미국에서 발전한 언론개념과 사상을 접하게 되면서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구미 언론이론과 사상의 직접적인 접촉과 수용은 1950년대 일부 언론인들이 미국에서 연수를 받은 경험들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한국전쟁기와 그 이후 미국에 연수를 다녀온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언론의 자유주의 이론과 함께 언론의 사회책임이론이 수입되어 논의되었다(박권상, 1983). 알권리, 알릴 권리, 프라이버시의 권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 등의 개념도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장 용, 1969). 또한 미국을 다녀온 언론인들 중심으로 언론연구 친목단체 관훈클럽을 결성했는데, 이들 주도로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조직되어 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하고, 4월 7일 『독립신문』 창간일을 신문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구미의 언론이론에 영향 받은 새로운 시도들이었다(관훈클럽50년사·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30년사 편찬위원회, 2007 참조).

장준하는 이와 같이 신문에서 활동한 언론인들과 언론학자들이 이해하고 인식한 언론개념과 같은 알권리, 알릴 권리, 언론의 독립과 자주성,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 정의와 사회질서의 전제로서의 언론자유 의 필요성, 쟁취와 투쟁으로서의 언론의 자유 개념 등을 인식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장준하의 언론사상이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대학생과 지식인이 주 독자 층인 『사상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전반 전문서적으로 읽을 만한 것이 매우 드물던 시절 『사상계』가 대학 교과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고려하면(주간좌담, 1995, 60~63쪽), 당시 한국 지식인사회에 언론의 본질이나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개념 이해와 확산에 장준하의 인식논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¹⁴⁾.

장준하의 언론인식과 사상에서 그 의미가 큰 다른 하나는 그의 주장과 논리가 단순한 언어적 표현이나 이론적인 논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실천과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장준하의 언론사상에서 언급한 감시와 비판으로서의 언론의 역할, 지식인 상대의 교육, 계몽적 역할의 강조, 쟁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확보될 수 있는 언론자유 개념 등의 논리들이, 단순한 이론적 논의만이 아니라 『사상계』가 다룬 주제와 논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기사를 게재하라는 정부의 권유를 거부한 행동, 그리고 언론 통제를 위해 1964년 제정한 언론윤리위원회법 시행 보류를 위한 국민대회에

13) 비분강개(悲憤慷慨) : 슬프고 분하여 의분이 북받침(http://www.korean.go.kr/09_new/index.jsp).

14) 『사상계』에는 창간 당시부터 장준하이외에 언론인과 학자들이 집필한 언론주제 논설이 꾸준히 발표되었다. 이런 글들도 독자들의 언론이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대변인으로서 주도적인 활동 등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동아일보』 1964. 9. 7. 1)¹⁵⁾. 이런 면모는 김기승이 “한국의 사상사적 발전에서 장준하가 더욱 빛을 발하는 이유는 그의 사상의 논리성과 체계성 때문이 아니라 실천적 행동에 담긴 순수한 정신과 열정 때문이다.”고 평가한 것과도 일치한다(김기승, 2002, 233쪽).

지명관은 더 나아가 장준하의 언론사상을 “저항과 투쟁 속에서 자아낸 사상이란 언제나 가장 힘 있고 유효한 저항논리”라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지명관, 1995, 491~496쪽). 그의 주장과 논리가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애국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형식적인 중립은 의미가 없는 적극적인 주장언론이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이 광막한 중원 길에서 처음 등불이나 제단을 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분에게 언론이란 언론운동이었고, 그것은 독립과 애국을 향한 투쟁이 일환이었다. 그런 속세어는 언론의 중립이란 사실은 사치스러운 언어에 지나지 않았다. 그분에게는 언론도 목숨을 건 애국을 위한 투쟁이었다. ... 거기에서 형식적인 중립적 언론이란 있을 수 없었다. 혁명을 위하는 언어에다 어떻게 중립이라는 입장을 요청할 수 있겠는가. 그때 언론이 자리하는 차원은 일상적인 언론의 경우와는 판이하다고 해야 한다.

실제 장준하는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인물로 기억했다. 『사상계』의 대표적인 필자였던 함석헌은 “그는 무엇보다도 행동의 사람입니다. ...행동의 사람인데 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고 평가했고, 10여 년간 『사상계』 편집위원으로 활동했던 안병옥은 “그는 사상계를 만들었지만 문(文)의 인(人)이 아니고 행(行)의 인이다. ...그는 백절불굴의 저항인이었다. 부정과 불의에 대한 저항정신은 그의 본령이요, 생명이요, 혼이었다.”고 평가했다(안병옥, 1995, 109~110쪽).

장준하의 잡지 언론 활동과 언론사상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갖는 현재적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은 그의 언론사상의 성격에서 시사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장준하의 언론사상의 내용과 실천, 구체적인 행동과 일관성은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할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준하의 애국애족의 비분강개적인 논리 제시방식은 당시에는 그의 절실한 심정을 담은 방식으로서 의미가 있었지만, 같은 내용이라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15) 장준하가 밝힌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본다. 1950년대 말 이승만정권이 어용작가, 교수들을 동원해 이대통령을 찬양하는 글을 전국 각 신문, 잡지에 강제로 게재하게 했다. 『만송죽(晩松族)』이란 말이 유행어가 되던 시절이었다. 『사상계』에도 “국부 이승만박사의 계시한 민주주의 이념”이라는 서울대 어느 교수의 글이 공보처장의 게재요청 전갈과 함께 배당되었다. 당시 공보처장 전성천은 『경향신문』을 폐간시킨 자유당 강경파 출신이었다(『신문평론』, 1974, 27쪽; 전성천, 2001, 64~69쪽). 『사상계』 관계자 가운데는 후일의 보복을 두려워해 제목을 바꿔 실어보자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하고 그 원고를 되돌려 보냈다. 장준하는 “그런 걸 실어 가며 구차히 목숨을 부지해 나가느니 차라리 죽게 되면 죽자는 비장한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종류의 글이 다른 신문과 잡지에는 거의 매호마다 계속하여 실지 않을 수 없었지만, 다행히 『사상계』는 그 후에도 단 한편도 게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장준하가 “자유당 치하에서 『사상계』의 역사는 수난사라기보다는 투쟁사라는 것이 맞겠다. 그것도 항상 이기는 투쟁사였다”라고 한 것은 이런 경험에서 나온 표현이었다(문집3, 23쪽). 만송죽이란 자유당 말기 이기봉의 호를 따서 불린 대학, 언론, 문화, 예술계의 어용 집단으로 이기봉 부통령만들기의 전위그룹으로 활동했다. 이승만은 ‘신성불가침’의 성역에 놓고, 고령의 이승만 유사시에 그를 이을 이기봉을 부통령에 당선시키는 일을 주도했다.

Ⅰ 참고문헌

- 관훈클럽50년사·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30년사 편찬위원회 (2007). 『관훈클럽50년사·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30년사 1957~2007』. 관훈클럽·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 김건우 (2002). 1950년대 후반 문학과 <사상계> 지식인 담론의 관련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건우 (2003).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서울: 소명출판.
- 김기승 (2002). 장준하, 민주 한국의 민족적 양심. 『내일을 여는 역사』10호. 216~234.
- 김대영 (2002). 장준하의 정치평론 연구(1): 장준하의 정치평론에 나타난 민족주의. 『한국정치연구』 11집 2호.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157~179.
- 김대영 (2003). 장준하의 정치평론 연구(2): 장준하의 정치평론에 나타난 민주주의. 『한국정치연구』 12집 2호.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151~173.
- 김영희 (2012). 우리나라 초기 언론학 교육의 출현과 그 성격. 『한국언론학보』 56권 1호. 132~155.
- 김영희·박용규 (2011). 『한국 현대 언론인 열전』.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권상 (1983). 『자유 언론의 명제』. 서울: 전예원.
- 백낙준 (1983). 『나의 종강록』. 서울: 정음문화사.
- 뿌룬너, 에미일; 전택부 역 (1953). 정의와 사회질서. 『사상계』. 제1권 제2호. 142~179.
- 서영훈 (1995). 6·25 동란중 부산에서 있었던 일. 장준하선생추모문집간행위원회 편(1995). 『민족혼·민주혼·자유혼 : 장준하의 생애와 사상』(93~98쪽). 서울: 나남출판.
- 신용하 (2005). 1930년대 문자보급운동과 브·나로드운동. 『한국학보』 120집. 95~132.
- 안병욱 (1995). 淸과 義와 勇의 人, 장준하. 장준하선생추모문집간행위원회 편(1995). 『민족혼·민주혼·자유혼 : 장준하의 생애와 사상』(106~110쪽). 서울: 나남출판.
- 여석기 (1995). 신선감을 주었던 사상계 문단. 장준하선생추모문집간행위원회 편(1995). 『민족혼·민주혼·자유혼 : 장준하의 생애와 사상』(132~135쪽). 서울: 나남출판.
- 오영섭 (2004). 이승만과 한글과동. 문정인·김세중편. 『1950년대 한국사의 재조명』(565~601쪽). 서울: 선인.
- 이구현 (1999). 『미국 언론법』.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민웅 (2008). 『저널리즘의 본질과 실천』. 파주 : 나남.
- 이부하 (2006). 미국 헌법상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 『헌법학연구』 12권 2호. 173~204.
- 이상록 (2010). 사상계에 나타난 자유민주주의론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용성 (1996). 한국 지식인잡지의 이념에 대한 연구 : 『사상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용성 (1997). 『사상계』의 지식인과 잡지이념에 대한 연구. 『출판잡지연구』 5권1호. 출판문화학회. 55~72.
- 이용성 (2003). 1960년대 비판적 지식인 잡지 연구—사상계의 위기와 창작과 비평의 등장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37집.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3~214.
- 이용성 (2012). 『『사상계』와 비판적 지식인 잡지 연구』. 서산 : 한서대출판부.
- 임대식 (1998). 1950년대 미국의 교육원조와 친미엘리트의 형성. 역사문제연구소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128~185쪽). 서울: 역사비평사.
- 장 용 (1969). 『言論과 人權 : 한·미 언론법과 판례의 비교연구』. 서울: 선명문화사.
- 장준하 (1963). 一市民이 읽은 30년간의 신문. 고재욱선생화갑기념총편찬위원회편. 『민족과 자유와 언론』(351~365쪽). 서울: 일조각.
- 장준하선생 10주기 추모문집 간행위원회 (1985a). 『장준하문집 1 : 민족주의자의 길』. 사상.

- 장준하선생 10주기 추모문집 간행위원회 (1985b). 『장준하문집 2 : 돌베개』. 서울: 사상.
- 장준하선생 10주기 추모문집 간행위원회 (1985c). 『장준하문집 3 : 사상계지 수난사』. 사상.
- 전성천 (2001). 『십자가 그늘에서—전성천 회고록』. 서울: 도서출판 동영사.
- 정진석 (1995). 용재와 언론.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엮음. 『백낙준박사의 학문과 사상』(181~210쪽). 서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정진석 (1999). 『문자보급운동교재 조선일보·동아일보 1929~1935』. 서울: LG상남언론재단.
- 정진석 (2001). 『역사와 언론인』.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지명관 (1995). 구국과 혁명의 언론. 장준하선생추모문집간행위원회 편(1995). 『민족혼·민주혼·자유혼 : 장준하의 생애와 사상』(479~496쪽). 서울: 나남출판.
- 천관우 (1955). 『매스·컴퓨터이론』연구를 위한 序說. 『문리대학보』. 제3권 1호. 12~21.
- 최수일 (2008). 『『개벽』연구』. 서울: 소명출판.
- 공보정책의 급석 : 전설장들이 말하는 이론과 실제. 『신문평론』4 9호 (1974). 25~31.
- 주간좌담 사상계시절을 말한다. 장준하선생추모문집간행위원회 편 (1995). 『민족혼·민주혼·자유혼 : 장준하의 생애와 사상』(55~91쪽). 서울: 나남출판.
- Altschull, J. H. (1990). *From Milton To McLuhan : The Ideas Behind American Journalism*. 양승목역(1993). 『현대언론사상사』. 서울: 나남.
- Bond, F. Fraser (1954). *An Introduction to Journalism : A Survey of the Fourth Estate in all its Forms*. 박기준 역(1956). 『新聞論』. 서울: 서울신문사.
- Brunner, E. (1943). *Justice and the Social Order*. 전택부 역(1954). 『정의와 사회질서』. 사상계사.
- Emery, E. Agee, W. K. & Ault, P. H. (1960). *Introduction to Mass Communications*. 장 용·박권상 역(1963). 『매스컴론』. 서울: 을유문화사.
- Kovach, B. & T. Rosenstiel (2007). *The Elements of Journalism : What Newspeople Should Know and the Public Should Expert*. 개정증보판. 이재경 옮김(2009).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한국언론재단.
- Robinson, M. (1988). *Cultural Nationalism in Colonial Korea*. 김민환 역(1990). 『일제하 문화적 민족주의』. 서울: 나남.
- Shoemaker, P. J. & Reese, S. D. (1996). *Mediating the Message :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2nd ed. 김원용 역(1997). 『매스미디어 사회학』. 나남출판.
- 屋外集會禁止의 理由는 무엇? (1958. 11.30). 『동아일보』, 1.
- 강력한 신문은 국민의 보루 (1959. 3. 29). 『경향신문』, 3.
- 떠나는 신문학교수 리차드·가버박사 (1962. 7. 15). 『경향신문』, 3.
- 『막사이사이상』 결정을 보고 (1962. 8. 21). 『동아일보』, 2.
- 발기위원 400명을 선정 (1964. 9. 7). 『동아일보』, 1.
- 新聞學學術강연회 “듀크”박사 (1966. 6. 9). 『동아일보』, 5.
- 관훈클럽 발행『신문연구』1~11호 (1959~1966)

(투고일자: 2012. 6. 17, 수정일자: 2012. 7. 17, 게재확정일자: 2012. 7. 20)

ABSTRACT

Jang Jun-Ha's Journalism Thought

Young-Hee Kim*

This study, as one of works to understand the character of contemporary journalism thought in Korea, aims to review the journalism thought of Jang Jun-Ha, a magazine journalist who published the monthly magazine *Sasanggye*(思想界) from the 1950s to the 1960s and promoted its influence like major newspapers at that times. For the purpose it analyzed how his understanding of journalism had been performed and what his main logic and idea on journalism thought was. Based on the above it considered the matters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his journalism thought. As result of study his journalism thought can be said nationalistic enlightenment journalism consistently since he established the magazine to enlighten the educated youth, while it shows a kind of interpretive journalism or orientating journalism from the end of 1950s. In 1962 when political suppress on the *Sasanggye* was growing worse his journalism thought is evaluated to show a kind of advocacy journalism strongly. As he understood and received the concept and theory newly recognized in the academic and press community, his journalism thought could be said to be advanced at that times. Also his theory and assertion could be evaluated persuasive from the viewpoint of the following concrete execution and action.

Keywords: Jang Jun-Ha, Magazine Journalism, Contemporary Journalism Thought, *Sasanggye*, Nationalistic Enlightenment Journalism, Interpretive Journalism, Advocacy Journalism

* Senior Researcher, Institute of Communication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